

고정 관념을 벗어던진
화가 『르네 마그리트』



박 회 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살면서 경험처럼 소중한 것이 없지만 때로는 경험으로 얻은 지혜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비틀어 꿈의 이미지를 창조해냈다. 마그리트의 추구했던 예술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림으로 그려진 세계는 실물과는 무관한 세계라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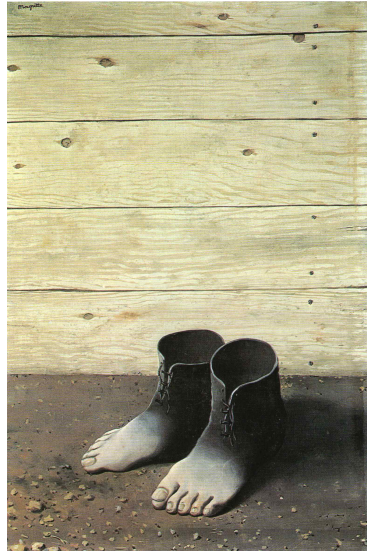
고정관념을 비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붉은 모델>이다. 이 작품은 마그리트가 구두에 대해 품고 있었던 생각을 화면에 표현했다. 그는 '구두의 문제는 가장 비천한 사물이 어떻게 품위 있게 보여 지는가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그의 생각을 배경을 하고 있지만 화면속의 구두는 품위 있어 보이기보다는 기괴하기까지 하다.

구두 뒤쪽의 판자는 화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고 구두가 놓여 있는 땅은 자갈투성이다. 판자 있는 공간은 금방이라도 사람이 나와 구두를 신고 갈 것만 같다. 하지만 사람의 발과 가죽으로 된 구두가 결합된 형태는 발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구두는 아니다.

사람의 발 윗부분에 구두끈이 풀어져 있어 누군가라도 금방 신을 수 있는 구두로 묘사한 충격적인 이 작품에서 마그리트는 패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구두의 품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면에 밟으면 아플 것 같은 자갈을 흘뜨려 놓음으로서 구두의 기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마그리트는 어린 시절 납골당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화가의 길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벽지 도안과 광고지를 만드는 상업 미술가로 활동해야만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는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욕구를 뿌리칠 수 없어 늦은 밤에 그림을 그렸다.

초창기 마그리트의 예술세계는 불확실했으나 그는 시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1930년대 마그리트는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초현실주의 엄격한 이론에 벗어나면서도 회화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으려는 그의 생각은 작품에 발전을 가져왔다. 르네상스 이후 회화는 2차원적 평면 위에 3차원적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 그러한 원근법을 마그리트는 거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환상의 이미지를 탐구하면서 구체화시켰다. 그는 외부와 내부, 객체와 주체, 실체와 상상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힘을 쏟았다.



<붉은 모델>-1935년, 캔버스에 유채, 72*48, 스톡홀름 근대 미술관 소장

한편 마그리트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교묘하게 엮어 놓은 작품이 <근경에 처한 암살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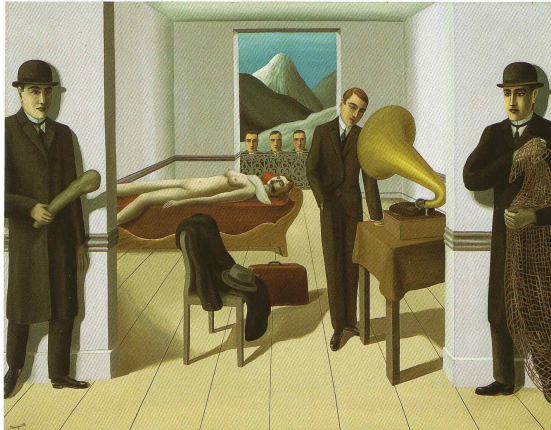
벌거벗은 여자가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고 남자는 축음기 앞에서 음악을 듣고 있고 있다. 축음기 앞의 의자에 놓여 있는 외투와 증절모는 남자가 떠나기 직전임을 암시한다. 암살에 성공한 남자는 성공의 여유로움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몽둥이와 그물을 들고 있는 남자 두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고 방 뒤 발코니 뒤로 남자 쌍둥이 세 명이 살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암살자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지만 무표정하고 부동의 인물들은 암살자를 위협한다. 암살자는 살해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다.

이 작품은 추리소설과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지만 그것과 차별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인물들이다. 살해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절모의 넥타이를 맨 정상적인 부르주아 신사들로서 통속적인 추리소설과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회고전으로 계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명성에 만족하지 않은 마그리트는 제2차 대전 이후 죽음에 매료되어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력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환상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했다. 사후에 마그리트의 작품은 영화, 음반 제작들에게 영감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마그리트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경에 처한 암살자>-1926년, 캔버스에 유채, 150*195,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